논어 13편 자로 5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誦詩三百，授之以政，不達。使於四方，不能專對；雖多，亦奚以爲？」

독음 · 자왈 송시삼백 수지이정 부달 사어사방 불능전대 수다 역해이위

쉬운 풀이(요약) · 시 삼백 편을 외워도 정사와 외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많이 외운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誦 풍유할 송 송 / 詩 귀글 시 시

三 석 삼 삼 / 百 일백 백 백 / 授 줄 수 수 / 之 갈 지

以 써 이 이 / 政 정사 정 정 / 不 아닐 불 / 達 통달할 달 달

使 하여금 사 사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四 넉 사 사 / 方 모 방

能 능할 능 능 / 專 오로지 전 전 / 對 마주볼 대 대 / 雖 비록 수 수

多 많을 다 다 / 亦 또 역 / 奚 어찌 해 해 / 爲 할 위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